



천국을 거닐다, 소쇄원 이기동 지음

유학자들이 꿈꾸던 이상

이 세상에 과연 천국이 존재할까? 답양 소쇄원을 '천국'으로 상징한 책이 나왔다.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유학 동양학부 교수가 펴낸 '천국을 거닐다, 소쇄원'은 정암 조광조로부터 해서 김인후, 송강 정철로 이어지는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을 되짚는다. 저자의 담박한 사설은 소쇄원 곳곳의 모습과 더불어 가사문학관·식영정·면암정·환벽당·송강정의 사계를 담은 사진과 어우러진다. 유학의 목적은 자기를 완성하고 타인을 완성시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였다. 소쇄원에는 당대에 뜻을 펼치지 못했던 유학자들의 염원과 처절한 자기 수양의 흔적이 배어 있다. 이 때문에 저자는 소쇄원을 한자 그대로 인품이 맑고 깨끗해 속기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산으로 평한다. <사람의 무늬·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금 가장 읽고 싶은 철학의 명저 하세가와 히로시 지음

고전 속 즐거운 사색

'해결 번역혁명'으로 이름높은 일본의 철학자 하세가와 히로시가 쓴 독서에세이 '지금 당장 읽고 싶은 철학의 명저'가 출간됐다. 저자는 15권의 고전을 인간, 사색, 사회, 신앙, 아름다움의 5개 카테고리 구분에 담아 읽어나가면서 느낀 바를 기존 번역본을 인용하며 소개한다. 책에서 다룬 고전들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등 희랍 고전에서 20세기 프랑스 철학사, 사회과학사, 논어, 문학 작품 등에 걸쳐 있다. 하나같이 읽어서 재미있고 그 느낌을 글로 써서 더욱 즐거운 책들이다. 저자는 이들 작품이나 작가에 대해서도 교과서적인 소개보다는 비판적인 태도로 자기 나름의 사색을 심화시키는 소재로 활용한다. <교유서가·1만3800원> /이보림기자 boram@

# 고대인들은 어떻게 GPS도 없이 망망대해를 건넜나

## 인류의 대항해

브라이언 페이건 지음



사실 바다는 뱃사람들이 끊임없는 관찰과 점진적 침투, 문화적 기억을 통해 터득해 가면서 서서히 인간의 환경이 되었다. 바다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몸을 내맡기는 것, 적어도 바다의 리듬에 적응하고 바다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신호들을 읽어 내는 것을 뜻했다. 오늘날 바다에 대한 이런 친밀한 이해는 컴퓨터와 위성 항법 앞에서 사라졌다. <본문 중에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신대륙 발견자 콜럼버스 이전에는 어떻게 망망대해를 건넌들까? 위성항법장치(GPS)도, 나침반조차 없던 시대에 고대

## 바다가 주는 신호 읽어내 바람·인력으로 세계 누빈 고대 항해자들 역사 답아

사람들은 어떻게 마나면 섬들을 오갔을까? 고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라이언 페이건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놓는다. 그가 쓴 '인류의 대항해'는 바다와 인류 문명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되살려낸다. 책은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고대 항해자들의 역사를 아우른다. 저자는 8살 때 어부였던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항해술을 배웠고 후일 GPS 없이 대서양을 횡단하기도 했다. 책 곳곳에서 뱃사람 특유의 시선과 현장감이 묻어나는 건 그 때문이다. 그는 고대 사람들은 GPS와 디젤 엔진이 없이도 놀라운 항해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들이 가진 것은 보잘 것 없는 카누와 뗏목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다에 대한 방대하고 세부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 별을 보고 방위와 위도를 측정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풍향을 예상했다.

한마디로 도구와 기술은 소박했지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민함이 있었다. 그들에게 바다는 일상이자 삶의 연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15세기 유럽인이 대항해시대를 열기 전 북유럽 노르드인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거쳐 북아메리카 연안에 당도했다. 11~13세기 폴리네시아인은 돛 단 카누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의 망망대해를 건넜다. 기원전 10세기 안데스인은 오늘날의 에콰도르 해안에서 뗏목을 타고 대해를 가로질러 마야 문명과 왕래했다. 기원전 2세기에는 그리스인 히팔루스가 아라비아에서 인도까지 항해했다. 라피타인이라 불리는 민족은 그보다 훨씬 전에 오세아니아 근해, 피지, 톤가 등 폴리네시아 전역의 무인도를 개척했다. 저자는 고고학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할 결과, 인류 최초 장기 항해는 5만 5천여 년 전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해수면이 낮았던 동남아 앞바다에서 오세아니아 근해로 사람들이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바다를 따라 해상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덧붙인다. 지중해와 인도양 인근 사람들은 교역을 위해 바다로 나갔는데 기원전 2600년경 이집



트는 레바논산 통나무를 지중해를 통해 대량 수입했다는 것이다. 인도양을 둘러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강이 고대 문명의 요람이 된 것도 교역이 원인이었다. 뱃사람들이 인도양의 특성을 알게 된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목재, 금속 같은 상품을 타 지역에 수출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교역을 가능하게 했던 건 특별한 장치가 없었던 짐배와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바다에 대한 적응력이었다.

이처럼 책에는 오랜 세월 바람과 인력만으로 세계 곳곳을 누빈 뱃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돛과 노를 믿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했던 고대 항해자들은 진정한 뱃사람이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자연과 바다를 무시한 탐욕이 없었다. 어쩌면 '인류의 대항해'는 이즈음에 벌어진 침몰 사고를 한번쯤 돌아보게 한다. <미지북스·2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18~20세기 전환기 지성의 족보 추적



고전 통변 노관범 지음

한국의 근대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근대 이후 한국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우리는 1897년 대한제국이 탄생하고 일제와의 강제병합 후 근대화가 진행된 역사를 배웠다. 그리고 근대화 이후 한국인의 삶은 동양문명에서 서양문명 쪽으로 급속히 변화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20세기 중반 역사적 전환기에 당대와 씨름하는 사회과학을 시도했던 지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또한 제왕의 유교에서 인민의 유교로의 전환을 부르짖으며 유교를 대중

화하려 했던 움직임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전환기 지성의 족보를 추적한 고전 평설사가 나왔다. 노관범 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펴낸 '고전통변'은 1714년부터 1954년에 이르는 역사적 전환기를 조망한다. 저자는 변화의 파고가 높았던 18세기 지성사에 초점을 둔다. 18세기에 주목할 만한 고전은 오광운의 '기묘록후서'이다. 오광운은 중종 시대를 조광조가 비참한 죽음을 당한 기묘사화의 시대가 아니라 군신이 함께 왕도정치를 도모한 시대로 기록했다. 오광운의 꿈은 훗날 조정의 정교(政敎)와 기묘사림의 협찬을 중심 내용으로 '중흥기묘'를 편찬한 홍양호에 의해 달성됐다. 홍대용의 '의산문답'은 18세기 사상사에서 꼭 짚어봐야 할 고전이다. 책에는 "탕 임금과 무 임금은 뒷사

람에게 대항하여 역성혁명을 성취한 부도덕한 임금이었고, 진시황제의 가공할 만한 분서갱유가 도리어 한나라의 행복을 열어주었다"는 파격적인 언설도 담겨 있다. 또한 공자를 주나라 시대 사람으로 역사화하고 "만약 공자가 조선에 와서 중화문명을 전파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신성시여기는 공자를 평범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처럼 저자는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것은 고전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불변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숨 가쁜 변화의 현장, 한국인의 감성이 담긴 전환기 고전은 변화의 핵심을 꿰뚫는 지혜를 선물한다. <김영사·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 세계적 건축가의 '50년 건축인생'



도시를 그리는 건축가 김석철·오호림 대담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도시설계가 김석철의 50여년 인생을 담은 대담집 '도시를 그리는 건축가'가 나왔다. 언론인 출신 현직 변호사인 오호림씨와의 대담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총 30여회 진행된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김석철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의 건축수업, 중년의 해외 도시설계 경험, 암투병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현재의 모습까지를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회고한다. 대담집은 한 사람의 건축가가 70여년

인생 동안 축적해온 방대한 독서량과 국적을 넘나든 학문교류를 통해 어떻게 코즈모폴리탄의 한 전형으로 성장해갔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여러 건축물과 도시계획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김석철 설계하면되면뿐 아니라 그와 어울리는 세계의 지리·역사·사회·문화 등에 관한 생생한 해설들은 독자들에게 즐거운 지적 탐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70대 현직 도시설계가의 입담과 그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30대 현직 변호사의 대화에 차례로 귀를 기울이는 동안 독자들은 지난 50여년간 한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고은 시인은 "김석철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대지를 가슴에 품어야 하는 들집승이다. 그는 식도도 위장도 없이 학부하급생처럼 싱싱하다. 그대는 감동이다."고 말한다. <창비·2만3000원> /이보림기자 boram@



가입문의 1855-0000

##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 MAX, ch. 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상상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 4월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된 상상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상상전자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에디션'을 통해 시청가능하시니 이 부분은 상상전자에 문의주세요. (상상전자 고객센터: 1588-3388)



**헬로tv UHD 방송이런?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ovision.com](http://www.cjhellovision.com)